

태평양 지역의 시민사회단체(CSO)와 무형유산 증진*

엘리스 허퍼

태평양공동체사무국 문화자문관

태평양은 고대의 항해 전통과 관련 깊은 대단히 거대한 바다다. 태평양 섬 주민들은 항해술을 이용해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었다. 섬 주민들은 별자리, 파도, 해류 등 자연 요소만을 이용해 카누를 타고 이 거대한 바다를 누비면서 놀랄만한 항해술 지식을 축적했다. 태평양에 관해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 특히 기부 국가와 외지인들은 지역의 취약성과 협소함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태평양은 특히 바다가 사람들 사이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이어 주는 섬들의 바다로 보는 문화와 문화인류학의 인식 체계 전환을 낳았다.

이해 차원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인구다. 태평양 섬들의 인구는 뉴질랜드령인 니우에의 1,500명에서부터 태평양 지역의 가장 큰 섬인 파푸아뉴기니의 500만 명이 넘는 정도로 매우 다양하다.

토지소유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다. 태평양 섬 국가에서 토지는 국가가 아닌 공동체에 속한다. 극히 일부 토착민이 식민지 상황에서 터전으로부터 내쫓겼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토지 소유자는 지역 주민이다. 이러한 토지소유제는

* 본 원고는 엘리스 허퍼가 구술로 발표한 내용을 기록한 것임을 밝힌다.

사람과 땅을 떼려야 뗄 수 없는 개념으로 적용돼 바누아(vanua), 폰누아(fonua), 페누아(fenua)와 같은 태평양 특유의 중요한 개념을 낳았다.

태평양에서 문화는 곧 삶의 방식이다. 문화의 현대 표현 역시 물론 존재하지만 문화라고 할 때 태평양 섬 주민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다른 발표자들이 언급했듯이 통치 체계(governance system)는 문화유산과 이들 표현물에서 생겨나서 다시 이들 유산 및 표현물로 귀속된다. 문화는 언제나 땅으로 되돌아간다. 전래로 문화는 사람과 공동체의 손에 달려 있다. 문화는 재정 지원, 정책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기술상의 이유로 정부가 꺼려 하는 분야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화 부문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문화가 정부가 아닌 주민에게 속하는 상황에서 이 부문은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태평양 지역에서 무형유산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지만 주민 모두에게 전통지식이라는 개념은 친숙해서 대신에 자신들의 용어로 이 유산에 관해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태평양에서 전통지식이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된 것을 말한다. 수많은 전통지식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부족과 가문에 귀속되어 있다. 전통지식은 가문의 특정 개인에 의해 전승되기 때문에 지식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신성 또는 특권이라고 불릴 정도의 일부 지식은 전체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인류 무형유산이라는 개념은 태평양이라는 상황에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특정 아프리카 지역 등 세계의 여타 다른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다. 아프리카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태평양 역시 현대화와 세계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식민통치자들은 태평양 섬 주민들의 세계관보다 자신들의 세계관을 주장해 왔다. 잘 알고 있듯이 오늘날 세계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아프리카에서 온 동료들이 언급한 것처럼 교육은 문화를 소외시키는 경향이 있다. 종교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태평양 지역은 모두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태평양 지역의 국민 전부가 기독교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들은 스스로 기독교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도시화는 피지 같은 지역에서조차 심각할 정도다. 현재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으며,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인구의 75-80%가 농촌 지역에 살고 있어 여전히 농촌 인구 비율이 높다. 하지만 태평양 지역의 22개 섬 국가와 행정 지역 대부분은 크게 도시로 변화했다. 이주는 일부 국가에서 일상이 됐다. 예를 들어 사모아와 통가 등 폴리네시아 국가들은 자국에 거주하는 국민보다 해외로 이주한 국민이 더 많다.

현대예술 부문은 중요성이 점점 더해 가고 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 활발하지만 이들의 많은 부분이 전통 문화의 지식과 표현에서 큰 영감을 받는다. 현대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조상과 그들의 전통 상징, 무용, 노래 등에서 영감을 끌어낸다.

마지막으로 태평양 지역, 즉 태평양에 위치한 모든 섬은 고도로 발달한 지역 접근 방법과 구조 체계를 하고 있다. 한 예로 나와 함께 일하는 세계 정부간기구(1947년에 설립된 기술개발 기관)이며, 태평양에 지역 정부간기구가 6-7개 더 있다. 따라서 태평양은 지역 발전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다.

정부는 대개 문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지 않는다. 문화는 담론으로 가치가 높지만 공동체의 소관으로 간주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간섭 접근 태도를 취해 왔다. 문화 존중과 관련하여 기부 국가들은 동아프리카에서와 비슷하게 태평양 전역을 그다지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 주요 기부국으로는 호주, 뉴질랜드, 일본, 유럽 연합 일부 국가가 있다. 막대한 지원은 유럽연합에서 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기부 국가에서도 이러한 선례를 따랐으면 한다. 이는 문화 관심도를 고취시키려는 우리의 부단한 투쟁이기도 하다.

한편 태평양예술문화축제(Festival of Pacific Arts)는 지난 40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 이 축제는 4년마다 열리며, 언제나 정부가 주최하고 있다. 이 축제는 정부 간에 열린다. 태평양은 장기간을 이어온 지역 행사의 내력을 자랑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지역의 하나다. 제12회 태평양예술문화축제는 2016년에 개최될 예정이다.

매년 문화유산 숫자는 증가한다. 태평양문화유산허브(Pacific Heritage Hub)라는 조직이 태평양세계문화유산(Pacific World Heritage) 실천 계획의 이행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태평양은 전통지식 보전 분야를 선도하는 지역이다.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모델 법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정한 지역이기도 하다. 태평양 지역 2개국(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밖의 4개국에서는 관련법과 정책을 마련했다.

문화 부문에서는 정부와 공동체가 직접 관계에 있어서 영향력 있는 CSO 또는 NGO 부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화와 재정지원 프로그램이나 활동과 관련해 중앙 정부는 도, 지역, 마을 등 공동체와의 연계를 직접 맺는다. 태평양 지역에서 CSO 영역은 보통 국제 차원에서 주도되고 자연과 환경 보전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식량 안보와 농업에 초점을 맞춘 조직과 청소년 NGO가 꽤 있어도 문화 부문의 NGO는 그리 강력하지 못한 실정이다.

청소년 관련 업무를 보다가 다른 지역 기관에서 시민사회 일을 담당하게 된 한 동료는 두 달 전쯤 문화 부문에서 활동하는 NGO와 CSO 목록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데 나는 그런 목록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당황했다. 이들 조직구조도 작업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 내가 파악한 조직들은 카누, 보진, 농업, 청소년 문제에 주로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카누 관련 조직들은 문화에 중점을 두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이는 항해술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CSO가 정식으로 등록하는 이유의 하나는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기금의 대부분은 기부 국가에서 지원한다. 재정 지원 프로그램은 CSO 조직에 관련법 존재를 요구한다. 따라서 재정 지원은 선의의 CSO가 되도록 만드는 동기로 작용한다. 그러나 CSO 등록 절차는 종종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리며, 관료주의 성격을 띤다. 이것이 문화 분야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협회와 단체가 대부분 실제로 등록하지 않는 주원인으로 작용한다.

문화 부문에서 활동하는 CSO는 자율 설립 단체다. 이들 CSO는 실제로 정부에 의존하지 않거나 설립을 위해 정부와 공조하지도 않았으며,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분야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들 스스로 설립한 것이다.

여기서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하는 지역CSO 두 곳은 태평양군도박물관협회와 태평양예술연합이다. 태평양군도박물관협회는 다른 발표자가 언급할 예정이어서 여기에서는 상세히 다루지 않겠다. 이 협회는 태평양 지역 박물관들의 모임으로서 52개 단체회원과 20여 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 부문에서 정보 공유, 기회 모색, 연구, 기부 국가와의 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 활동은 전통지식 부문에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승인을 받았다.

태평양예술연합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국립 지부도 있다. 여기에 나열한 지부들은 모두 등록되었거나 등록될 예정인 곳들이다. 이 연합은 예술가들이 폭넓은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태평양예술연합을 이번 발표에 포함시킨 이유는 태평양 지역의 무형유산이 바로 예술가들이 벌이는 활동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태평양 지역에서는 무엇이 과거의 것이고 무엇이 현재의 것인지 나누는 것을 인위의 구분으로 간주한다.

카누를 통해 남녀 청소년들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마셜제도의 마젤에 있는 한 섬에 관해 간략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이곳 청소년들은 정부로부터 비정기 지원을 받는데 지원은 마셜제도 정부가 직접 하지 않고 마셜제도와 자유연합 협정을 체결한 국가 자격으로 미국이 하고 있다.

연합 조직들은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카누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카누를 타고 항해하는 방법을 전수한다. 카누 경기를 주최하는 한편 기술 및 직업 훈련 과정 등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카누 타기를 기본으로 하여 다른 여러 분야로 활동을 확대해 청

소년들에게 생활 기술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연합은 무형유산 보호에 기여하는 한편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도록 돕는 고유한 조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소형 카누 모형을 바탕으로 수많은 대형 카누가 제조되는 태평양에서는 카누 모형을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가장 먼저 소형 카누 모형 만드는 법을 배운다.

에빌 소사이어티는 국가 차원 NGO의 또 다른 사례다. 이 조직 역시 청소년, 문화, 환경 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다. 고유의 전통지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또 다른 사례로 미크로네시아에 속하는 추크(Chuuk)제도의 국제 NGO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슈 몇 가지를 짚어 보기로 한다. 태평양 지역에서 NGO 파악은 쉽지가 않다. NGO의 성격과 목적, 활동 등을 확인하고 어려움과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화된 현황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최대 관심사는 문화와 직접 관계된 것이 아니라 문화 범주에 포함되는 모든 사항이다. 또한 NGO의 역할과 범위, 이들 단체가 정부와 맺은 공동체 관계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문화 부문에서 활동하는 NGO의 설립과 육성 계획은 NGO가 공동체 대신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미 등록된 NGO로 말미암아 실제로 혜택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NGO가 정부와 공동체 간 직접 관계를 훼손할 것인지, NGO로 인해 공동체가 더 많은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정부와 NGO는 같은 재정 자원을 두고 서로 경쟁할 것인가? 이처럼 제기해야 할 질문이 많다.